



최형우가 부상으로 올스타전 명단에서 빠지면서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고 있는 KIA 김호령이 감독 추천 선수로 첫 올스타 무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격 눈 뜬’ KIA 김호령 “올스타전 호령해 볼까”



감독추천 첫 출전… 11·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KIA 박찬호·김태균·최지민·성영탁 등 5명 명단에

타격 전성기를 맞은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호령이 첫 올스타 무대에 오른다.

KBO는 10일 올스타전의 행사 참석 선수와 시상 내역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부상으로 인해 출전선수 변동이 생겼다.

나눔 올스타 베스트12 지명타자로 선정된 최형우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팬·선수단 투표에서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 2위를 기록했던 한화 문현빈이 베스트12 자격으로 ‘별들의 잔치’에 나서게 된다.

문현빈이 앞서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 출전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외야수 김호령이 새로운 감독 추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호령은 올 시즌 ‘수비 달인’을 넘어 타격에서도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전반기 ‘깜짝 스타’가 됐다.

9일 한화전까지 올 시즌 48경기에 나온 김호령은 41개의 안타로 0.28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는 시즌 마수결이 홈런에 이어 만루포까지 터트리면서 프로 첫 멀티포를 장식했다. 만루홈런은 개인 1호, 팀의 시즌 1

호이기도 했다.

부상 악재를 맞은 팀의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 김호령이 올스타전 초청장을 받으면서 KIA에서는 나눔 올스타 베스트12인 유격수 박찬호와 함께 감독 추천선수로 김태균(포수), 윤영철·최지민(이상 투수) 등 총 5명이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김도영도 나눔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됐지만 부상으로 참가가 불발됐다. 감독 추천을 받았던 아담 울러도 팔꿈치가 좋지 않아 윤영철로 명단이 바뀌었다.

KIA ‘갯벌’ 박재현·박현(이상 외야수), 이영재(지명타자), 이도현(투수)은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 나선다. 투수 김민주와 외야수 정해원이 각각 팔꿈치와 발목 부상으로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11·12일 한화의 새 안방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6시부터 퓨처스 올스타전이 열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가 펼쳐진다.

베스트 12 중 팬투표를 통해 KT 안현민, 삼성 다이즈, SSG 최정, 한화 문현빈, 키움 송성문, NC 김형

준, LG 박동원,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선다.

기존 ‘아웃제’ 방식에 더해 ‘시간제’ 방식으로 홈런 대결이 펼쳐진다.

참가 선수는 제한 시간 2분 동안 투구 수 제한 없이 타격할 수 있다. 또 한 차례 최대 30초의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예선전에서는 2아웃, 결승전에서는 3아웃이 나올 때까지 추가로 타석에 설 수 있다.

올스타전 당일인 12일에는 오후 3시 10분부터 외야 그라운드에서 팬사인회가 진행된다. 30명의 올스타 선수는 3개조로 나눠 팬들을 만나게 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선수, 팬, 마스코트가 함께 하는 ‘신한 SOL뱅크 썸머레이스’가 진행된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윤영철·최지민, LG 김영우·박명근, 한화 김서현·문현빈, NC 김주원·김형준, 키움 이주형·주승우가 썸머레이스에 참가한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 배찬승·이호성, 두산 김택연·오명진, KT 권동진·배정대, SSG 이로운·조형우, 롯데 김원중·전민제가 팀을 구성해 장애물 달리기에 나선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은

350만원의 상금을 얻게 된다.

‘별들의 잔치’는 오후 6시에 시작된다.

이범호 KIA 감독이 나눔 올스타를 이끌고, 삼성 박진만 감독이 드림 올스타 사령탑으로 나선다.

올스타전 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승리 감독상과 우수 수비상, 우수 투수상, 우수 타자상, 베스트 퍼포먼스상 시상도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메디힐 코스메틱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미스터 올스타’는 KIA EV4 차량을 부상으로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B, 올스타전에 ‘K-야구’ 시스템 도입

자동투구판정시스템 활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올스타전에 처음으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도입한다.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2025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처음 ABS가 활용된다고 10일 전했다.

메이저리그의 ABS는 KBO리그처럼 모든 투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경기처럼 주심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

하지만, 투수나 포수, 타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ABS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선수가 자기 머리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ABS 판독을 요청하면 곧바로 전광판에 호크아이 시스템을 통한 결과가 나온다.

ABS 판독 요청은 팀당 2차례씩 가능하며 성공할 경우 기회가 유지된다.

감독이나 코치, 다른 선수는 관여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는 수년 전부터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 등에서 ABS를 테스트했다.

올 스프링트레이닝 기간 몇몇 구장에서 처음 메

이저리그 선수들이 ABS를 경험했다.

보수적이던 여론도 최근 많이 바뀌었다.

MLB는 스프링트레이닝 기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야구팬의 72%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69%는 경기에 ABS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선수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대다수는 공 하나하나를 ABS로 판정하는 것보다 2차례 판독 요청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저리그 올 하반기 경쟁위원회를 열고 정규 리그에도 ABS 시스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BO리그는 지난 시즌부터 모든 투구를 ABS로 판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5관왕’ 새 역사까지 딱 1경기

14일 클럽 월드컵 결승 앞둔 PSG 엔리케 감독

프랑스 국내 3개 대회·UEFA 챔피언스리그 ‘4관왕’

“길어남을 역사적 기록까지 단 한 경기만 남았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물리치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 오른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전에 없던 ‘퀀투플’(5관왕)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PSG는 2024-2025시즌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냈다.

리그1, 프랑스컵에 슈퍼컵까지 프랑스 국내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구단 사상 첫 우승의 속원을 이뤘다.

엔리케 감독은 킬리안 음바페 등 스타 공격수들을 내보내고 팀에 대한 충성도와 전술 이해도가 높은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재정비, 부임 두 번째 시즌에 PSG를 유럽 최강팀으로 조련해냈다.

미드필더, 공격수가 각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그라운드 전역을 누비면서도 공수 밸런스와 조직력은 깨지지 않는, 비디오 게임에서나 볼 법한 축

구로 팬들의 눈을 흘렸다.

FIFA가 야심 차게 마련한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PSG의 막강한 경기력은 그대로였다.

2승 1패, 조 1위로 16강에 오른 PSG는 16강에서 인터 마이애미(미국)를 4-0,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2-0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10일 열린 준결승전에선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를 4-0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UCL 통산 우승 3위(6회) 뮌헨과 1위(15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거꾸 압승을 거뒀다.

특히 이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전반 공 점유율 76%, 슈팅 12-4, 유효슈팅 7-1 등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 보였다. 전반에만 3골을 퍼붓고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제 14일 오전 4시 kick오프하는 결승전에서 첼시(잉글랜드)마저 잡아낸다면, PSG는 올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다.

세계 축구계는 그간 사용한 전례를 찾기 힘든 ‘퀀투플’이라는 수식어를 PSG 앞에 붙이게 될 터다.

엔리케 감독은 5관왕 가능성에 대해 “시즌 시작부터 목표로 해 온 것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건 언제나 매우 어렵다. 우리처럼 전광왕 목표에 가까이 다가선 팀은 극소수”라면서 “구단과 팬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위’ 잡은 전남, 홈서 연습 잇는다

15경기 연속 무패 인천에 2-1 승

12일 경남FC와 K리그2 20라운드

‘1위’를 잡은 전남드래곤즈가 기세를 이어 홈에서 연습을 노린다.

전남드래곤즈가 12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19라운드 경기에서 ‘대어’를 잡았다.

4경기 연속 무승 중이었던 전남은 앞선 대결에서 15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이었던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했다.

전반 19분 알베르피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전남은 전반 40분 동점은 허용했지만, 결국 승리

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후반 41분 발디비아의 패스를 받은 정지용이 인천 골대를 가르면서 2-1 승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남은 5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만들었다.

9승 7무 3패(승점 34·득점 27)가 된 전남은 3위 부천FC(승점 34·득점 30)에 득점에서 밀려 4위에 자리하고 있다.

2위 수원삼성(승점 38)과 승점 4점 차, 거침없던 인천(승점 45)의 승점 사냥을 저지하면서 1위와는 승점 11점 차다.

상승세를 탄 전남과 달리 경남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경남은 4연패 뒤 지난 19라운드 안산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어렵게 승점을 추가했다.

승점 18점으로 10위 자리하고 있는 경남은 브

루노 코스타, 후병 마세도, 단레이 등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해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

최근 5년의 맞대결 전적은 2승 2무 1패로 전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남에 새 전력도 있다. 앞선 인천전에서 프랑스 국적의 ‘생마르탱 국가대표’ 르본이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르본은 후반 23분 교체 멤버로 나서 개인기와 돌파 실력을 보여줬다.

전남이 홈에서 연습을 잇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은 경남전에서 ‘장흥군의 날’을 진행한다. 이날 장흥군청과 장흥군체육회를 비롯한 단체와 군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전남을 응원한다. 장외에 제1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비디오 판독 결과 방송 안내 도입

K리그에서도 비디오 판독(VAR) 결과를 장내 방송(VAR Public Announcement·VAR PA)으로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3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와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에서 VAR PA를 시범운영하고, 다음 달 K리그 정식 도입을 검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VAR PA는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통해 판정을 내린 뒤,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 해당 판정의 이유를 관중에게 직접 설명하는 제도다.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을 비롯한 세계 주요 리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FIFA는 2023년 클럽월드컵에서 처음으로 VAR PA를 적용한 이후 2023 FIFA 여자 월드

컵, 2025 클럽월드컵에서 VAR 결과를 장내 방송으로 설명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2023년부터 도입했고, 독일 분데스리가는 2024-2025시즌 시범 운영을 거쳐 2025-2026시즌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카라바오컵 4강부터 시범 도입했으며, 프리미어리그는 2025-2026시즌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장비가 완비되지 않은 경기장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활용한 판정 브리핑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